



정교회주보

제2503호

2024.12.15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그리스 안드로스 섬의 성 니콜라스 수도원(사진)은 11세기에 세워졌으며, 1760년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수많은 성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16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블라케르나 파냐기아 성당에서 이곳으로 모셔진 성모님 성상은 잘 알려져 있다. 수도원에서 관할하는 성당은 섬 전체에 40개가 있는데, 이 중에 20개는 수도원 내부에 있다.



루가 제 11 주일
성 엘레프테리오스 주교순교자와
모친 성 안티아 순교자
(제8조 •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82
- 주교순교자(순교사제)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기송 205
- 사도경 : 디모테오 후 1,8~18 (봉)636
- 복음경 : 루가 14,16~24 13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부자를 구원으로 이끄는 우정

거룩한 말씀이 가르쳐주듯이(마태오 23,12), 머리를 젖히고 뽑내는 사람, 목이 꼳꼳한 사람은 언젠가 낮아지고 굴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정이란 결코 비굴하게 부자에게 아침이나 하고 그들의 비열함을 칭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충고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녀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도록 구속주의 은총을 간청하며, 그들을 밝게 비취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면서 말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와 가난'[정교회출판사] 중에서

악마의 일과 그리스도의 사역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그리스도께서는 허리 굽은 여인에 대해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루가 13,16). 그래서 그 여인을 치유하셨을 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유로 분개한 회당장에게 위선적이라고 꾸짖으시며,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루가 13,16 참조)고 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를 이미 어떤 사슬로 묶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사슬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욕망들입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종류의 사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는 금으로 된 사슬, 철로 된 사슬, 크기가 작은 사슬, 큰 사슬, 육체적인 사슬, 정신적인 사슬 등등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사슬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악마가 저질러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1요한 3,8) 또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1요한 3,5)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고백성사의 신비를 통

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오 18,18)

우리 모두는 어떤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로 갑시다. 겸손과 회개로 우리의 고백 사제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어떤 죄라도, 언제라도 용서해주십니다.

그리고 허리 굽은 여인의 기적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세부사항이 고백성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아”라고 부르시고 “네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신 후(루가 13,12), 그녀에게 손을 얹으셨고(루가 13,13), 그러자 즉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교회의 전통에 따라, 고백성사 때도 고백 사제가 고백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죄 기도를 읽습니다. 이때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큰 축일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기간에, 우리는 고백성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모두 성탄절 잘 보내세요!

한 가지 기억할 일

미국 애리조나의 에프렘 원로(1928-2019)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성탄절 40일 전에 정교 신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년 365일 내내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는 악마는 이 기간에 말 그대로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탄이 지어내는 다툼과 싸움, 유혹, 방해 등과 그밖에 모든 일들이 이 기간에 증가합니다.

악마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를 혼란에 빠트리려 파괴하고, 자극하고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간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기간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일은 그 어떤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이나 함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성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랑으로 이해하고 '예수기도'를 함으로써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우리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지는 그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꺾기 위해 여러 가지 덫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사탄의 교활함과 간계를 알고 있으니 그것에 맞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기도가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혀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거룩한 목표 안에서 굳세게 머무르십시오. 예수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자들이여, 투쟁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여러분을 위해 승리의 월계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투쟁을 순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인내하며, 굴하지 말고 끈기 있게 버티나갑시다. 어떤 세상적인 연민일랑 다 버리고, 재빠르며 깨어서 경계하는 정신을 길러나갑시다. 그리하면 모든 일이 우리가 바랐던 대로 될 것이며, 올해 참으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8일, 성찬예배 후에 드렸던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

자애로우신 주님, 최근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했던 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심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의 도움으로, 신속히, 또 어떠한 피 흘림 없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음에 감사드리며, 비민주적인 정권이 가져올 고난과 비극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지혜를 베푸시어, 폭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모

든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성숙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최근의 사건으로 발생한 정치적 문제를 평화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들이 언제나 겸손과 희생적 사랑과 자유와 정의와 평등의 마음으로 국민을 통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양받게 하소서. 아멘



울산 성당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2월 17일(화) 축일을 맞이하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요한 박인곤 신부님과 신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과 평화와 열정이 넘치는 성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2월 17일(화)
성 디오니시오스 에기나 주교

* 12월 20일(금)
성 이그나티오스
안티오키아 주교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성탄절 예배 안내

12월 24일(화)

오전 9:00	성탄절 대시과 (1시과, 3시과, 6시과)
오후 5:00	성탄절 대시과 (9시과) 성탄 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12월 25일(수)

오전 9:00	성탄 대축일 조과
오전 10:0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오후 12:00	성탄절 행사, 사랑의 오찬

알 림

■ 수요일 줌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영성생활에 관한 대주교님의 강론이 온라인(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가티 수녀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 가평 수도원

슬라브 신자들 봉사활동

지난 7일(토), 슬라브 신자 15명이 수도원을 방문하여, 겨울맞이 대청소를 도왔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묘소 주변 낙엽 정리, 성당과 내부 청소, 성탄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봉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당 축일을 보내며

올해도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을 적절한 준비 속에서 무사히 경축했습니다. 1일(주일)에는 성인의 성해와 성화를 성당 중앙에 모신 뒤, 많은 신자들의 참여로 대청소와 성탄 장식을 했으며, 5일 저녁에는 대만과, 6일 아침에는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신앙과 직제 2024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순례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주관한 “2024 ‘생명과 평화의 길’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순례”가 지난 11월 25일-12월 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순례단은 로마 교황청, 스위스 WCC 본부,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 등을 방문했고, 특히 12월 1일(주일)에는 총대주교청 성 요르고스 성당에서 예배드렸으며,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을 찾아뵙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교구에서는 요한 박인곤 신부가 참가했습니다.

